

‘입법전쟁’ 앞둔 여야, 전열 정비 전의 다진다

상임위 간사 조정·의원 워크숍 등 분주

여, 경제민주화 등 대선 공약 중점 추진

야, 정책·민생정당 이미지 부각 극대화

여야가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가 하면 상임위를 재정비하는 등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다음 달 4일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에 맞춰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 정치 혁신 등 3가지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오는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원내지도부와 정책위 의장단, 상임위 원장 및 간사들은 31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열고,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에 대한 강연을 들은 뒤 6월 국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창조경제·일자리 창출 테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을 집중적으로 다룬 예정이다. 또 최 원내대표가 정

책 기능 강화를 위해 공약으로 내놓은 6개 정책조정위원회 구성도 내주께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오는 6월 임시 국회에서 그동안 강조해온 ‘을(乙)’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입법으로 연결시켜 정책정당·민생정당의 이미지를 부각해 나갈気になる 전략이다.

특히 김한길 대표, 전병현 원내대표의 ‘투톱체제’가 출범한 뒤 처음 맞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은 ‘강한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유권자들에게 ‘수권 예비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오는 31일부터 1박2일간 전체 의원이 참석하는 ‘의원 워크숍’을 열어 6월 임시국회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자는 상임위 재정비에도 나섰다. 새누리당은 국방위·정보위·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교육문화체육

관광위 등 4개 상임위 간사를 조정하기로 했다.

국방위 간사인 한기호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 정보위 간사인 윤상현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 농해수위 간사인 김재원 의원이 당 전략기획본부장, 교문위 간사인 김세연 의원이 제1사무부총장에 임명됐기 때문이다.

당직을 새로 맡은 인사들이 당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들 4개 상임위 간사는 다른 재선 의원으로 교체한다는 것이다. 교문위의 경우는 김희정 의원이 간사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 간사단 조정은 제1~6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인선과 맞물려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원내지도부가 대거 물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부(이하 미방위) 위원들을 재배치하는 것을 비롯해 상임위원회를 조정할 계획이다. 미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성곤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원불교 관계자들이 개성공단 사태 발생 55일째인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며 3000배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한정애, 김성곤, 최민희 의원. /연합뉴스

민주 3일 ‘의원워크숍’

‘힐링 캠프’로
‘정체성’ 확보

민주당이 오는 31일부터 1박 2일동안 개최하는 국회의원 워크숍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서로를 이해하는 ‘힐링 캠프’가 될 예정이다.

이날 워크숍에서 각 의원들은 전원내대표가 제안한 ‘Who am I’ 프로그램에 맞춰 3분씩 자기 소개와 함께 동료 의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를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프로그램을 녹화해 유튜브에 올릴 계획이다.

여기에 유튜브 등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생중계해 지지층과 함께 호흡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워크숍은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임시국회 운영 및 입법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이지만, 당내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성격이 더욱 크다.

대선 패배 이후 계파 간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지리멸렬해진 당을 수습해 의원들이 정체성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워크숍에서는 장병완 정책위원장과 정상호 원내수석부대표가 6월 국회 운영 전략 및 입법 과제를 주제로 설명하고, 상임위별로 ‘을’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3000배의 달인’ 김성곤 의원 세번째 도전

개성공단 정상화 위해 매일 1000배씩 3일간…“4선의 리더십 보여야” 지적도

민주당 김성곤 의원(여수갑)이 또 다시 3000배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3000배다.

김 의원은 27일부터 사흘 동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매일 1000번씩 절을하면서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의 3000배는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격렬한 몸

싸움을 벌인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한다는 취지로 국회 로텐더 홀에서 3000배를 했다. 또한,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 재외동포 위원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대선 3일 전, 투표 득점을 위한 3000배 퍼포먼스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안팎에서는 김 의원에 대해 ‘3000배의 달인’이라는 미묘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 측은 비교적 고령(62세)임에도 몸에 상당한 무리가 되는 3000 배를 강행하는 이유로 ‘현안에 대한 진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종교적으로 삼발보다 3000배가 더 강력한 호소 수단이라는 점에서 독실한 원불교 신자인 김 의원이 이를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3000배에 담긴 김 의원의 충정은 이

해할 수 있지만 평소에 이같은 정치적 결기를 보였어야 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도(道)의 정치’를 내세우며 여야를 넘나드는 중도적 행보를 보여 왔지만 4선 의원에 걸맞는 정치적 리더십과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김 의원의 진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중진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있는 것 아니냐”며 “4선 의원이라면 민주당과 지역 정치권의 위기에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라는 점에서 김 의원이 보다 현실적인 리더십을 보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지방세무사회관 신축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광주지방세무사회관 신축공사
나.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둥립동 900-32
다. 공사개요
○ 구조 / 동 : 철근콘크리트 / 지상 3층 1동
○ 건축면적(면적) : 990.04㎡
○ 지역구 : 주주거지역, 일반민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 7개월
마. 기초금액 : 1,335,981,000원
(추정가격 : 1,214,528,181원, 부가세 121,452,819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광주광역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
나. 설계서에 의한 총입찰, 적립입찰, 제한경쟁입찰
다.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라. 공동 도급을 불허

3. 입찰참가 신청서류 및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13. 5. 27. (월) ~ 5. 31. (금) 18:00
나. 접 수처 : 광주지방세무사회관 1층 사무국 (문의 : 062-525-8450)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23-23

4.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13. 6. 3. (월) 15:00
나. 장 소 : 한국세무사회 2층 대회의실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497-16

5. 기타

가.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www.kacpta.or.kr) 입찰공고문을 속지하시고, 이를 이용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궁금한 사항은 광주지방세무사회(062-525-84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27일

한국세무사회장

50년 전통 대를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클리닉

제3분기 도입, 체지방분해, 고주파 지방분해, 시술

한의학 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진료문의 062)227-7575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성의법 제080130-증-2696호

정규직 사원모집

당사는 광주 삼성전자(주) 중, 대형 금형 수정/제작 전문 1차 협력업체로
서, 2013년 물량증가 및 사세확장으로 인한 (광주 첨단2단지 내) 현지
공장 신설로 인하여, 참신하며 책임감 있으며, 근면 성실한 정규직 사원
을 모집합니다.

모집부문	인원	자격 요건
금형 사상 (조립/분해)	00명	- 초보 기능 / 관현 직종 경력자 우대 - 사출금형(중/대형) 유경험자 우대
CAD/CAM	00명	- 학력 : 무관
CNC M/C	0명	- 나이 : 21~45세 이하(군필 및 이에 준하는 신분)
CNC 방전	0명	- 관련부분 자격증소지자 우대 - UG 프로그램 사용자 우대(CAD/CAM)
와이어컷팅	0명	-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사 출	0명	- 식당 / 청소 : 나이제한 없음
3자원 측정	0명	사내식당 유경험자
식당 / 청 소	0명	사내정소 경험우대/초보기능

- 근무지 : 광주 첨단2단지 내
- 기 간 : 총원시 까지
- 급 여 : 면접후 결정
- 구비서류 : 1) 이력서 ... 1통
2) 사진 ... 2매
3) 주민등록증본 ... 1통
4) 건강진단서 ... 1통
5) 관련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복지혜택

- 4대보험, 상여금(300%), 퇴직금, 기숙사, 근속수당, 성과제 인센티브
- 사내식당(조, 중, 석, 야식제공), 생일축하금, 명절선물, 월회식비지급
- 연/월차, 하계휴가, 경조휴가 등

전형방법

- 전화 후 회사방문(매주 목, 금요일 14시 정기 면접) / 구비서류 지참
- FAX 및 E-mail 접수 가능(yoold@naver.com)

(주) 신 흥 정 밀

TEL 054-473-6697 FAX 054-473-6698 H.P. 010-6309-2488

여의도 인사이트

남양유업 사태로 불평등한 갑
(甲乙) 관계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정치권이 적극적
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갑을 상생’의 방안

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정치적 갑을 관계’에 대해 ‘오

래전 이야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상향식 공

전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과거 정

치적 갑을 관계는 상당부분 희석

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정치권

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적 갑을 관계’ 해소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서로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공조 여부를

강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지
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에 없는 정치적 ‘을’의 입장이라
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들
은 ‘정치적 갑을 관계’에 대해 ‘오

래전 이야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상향식 공

전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과거 정

치적 갑을 관계는 상당부분 희석